

통영보호관찰소

○ 매체 : 범죄예방신문(2026. 8. 21.)

○ 제목 : 통영보호관찰소, 거제시 폭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 총력

통영보호관찰소, 거제시 폭우 피해 지역 복구 지원 총력

창원, 부산서부 참여로 통합 '사회봉사 재난복구 특별대응팀' 가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 통영지소는 2026. 8. 19.부터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거제시 둔덕면, 연초면 소재 피해 가구 등에 사회봉사 재난복구 특별대응팀을 투입하여 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지난 8월 15일부터 거제 지역에 내린 900mm이상의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시 둔덕면, 연초면 일대 피해 주택, 농가, 주변 시설물 등의 복구를 위해 통영보호관찰소, 창원보호관찰소, 부산서부보호관찰소가 협력하여, 사회봉사 재난복구 특별대응팀을 구성, 2026. 8. 19.부터 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회봉사 재난복구 특별대응팀 복구 작업에는 사회봉사 대상자 27명, 통영보호관찰소 지소장 김상훈 등 직원 17명이 참여하였고, 집중호우 이후 다시 시작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피해 주택, 농가 등의 빠른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거제시 둔덕면 주민자치회 회장(박○○)은 “지금 현재 거제시 둔덕면 하둔리 일대에만 158세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둔덕면 전체로 보면 1000세대 이상이 침수 피해를 보아 복구 작업이 막대한 상황에, 보호관찰소에서 봉사활동을 와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창원보호관찰소 통영지소장(김상훈)은 “거제시 둔덕면, 연초면은 언론에 보도된 목포동, 고현동에 비해 덜 부각된 수해지역으로 특히 둔덕면의 경우 마을 전체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대부분 고령층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어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최우선 목표로 도움이 필요한 피해 지역에 적극적으로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하여 피해복구 작업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하겠다.” 라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태풍, 폭우, 가뭄에 대비하여 전국 58개 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 재난복구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